

올 축산악취 저감 선제 대응 강구

익산시, “지원 확대·규제 균형 통해”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축사 내 악취발생 단계별 원인분석을 통한 억제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병행 하는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익산시 주요기축 사육현황은 1,268개 농가 724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부터 강력해지는 축산악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악취계를 신설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확대 하는 한편 악취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악취발생 원인을 농장 내

사양관리단계, 축사 내 사육단계, 가축분뇨 처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단계별로 악취저감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악취발생 농가는 주요민원 발생농가 115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악취 발생우려농장 38개소를 악취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해 축산농가교육사업 전문자를 통한 악취 저감 교육을 추진한다.

더불어 악취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악취저감에 비협조적인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저감은 행정은 물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단계별 저감 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저감으로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초청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3·1운동 100주년 ‘독립유공자 초청 감사 행사’

서부보훈지청, 원광대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근 원광대학교 내 수덕호 일원에서 재학생 300여명과 함께 ‘독립유공자 초청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원광대학교당이 주관하고,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특성화사업단이 지원한 본 행사는 감사편지 조형물 제작,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손편지 전달, 감사편지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2019 을지태극연습 준비를 충실하게

높이 2.3m의 크기로 수덕호 수변 지역내에 설치되며 봉투 앞면에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뒷편 무지개 펜스에 감사 엽서를 걸 수 있도록 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감사 손편지는 3·1절을 전후로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독립유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쓴 약 3,000여 통으로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과 학생들이 직접 이석규 생존 애국지사님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 전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공무원노조·시의회 양측 갈등 일단락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운)과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규)가 최근 지속됐던 두 기관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단 회의에 동석해 시정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을 상호 존

중하며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지난 4월 13일 KBS 방송을 통해 야기된 노동조합 탄압 중단 성명 발표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상호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노동조합과 군산시의회가 갈등관계로 대립하는 것처럼 비추지는 것에 대해 상호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에는 의회와 노조가 서로 잘 소통해 상호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서동환 부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로 인식하고 사전에 노

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방송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운 위원장은 “성명의 내용이 일각의 주장처럼 자칫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비취겨 시의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기업 맞춤형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 박차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올해 기업들의 맞춤형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량을 1만 톤 넘게 공급하는 등 농가들의 안정적 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가공용 쌀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시작으로 2019년도 가공용 쌀 원료곡 1만 2천 톤을 생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 시공무직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공무직노조는 지난 30일 정현율 익산시장, 공무직노조 신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공무직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로 내부역량을 결집해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돼 있으며 2009년 설립된 이래 조합원 수는 현재 2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2019 을지태극연습 훈련대비 사전 교육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2019 을지태극연습 훈련을 대비한 사전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기관리매뉴얼 및 총무계획에 대한 사전점검, 2019 을지태극연습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2019 을지태극연습 준비를 충실하게

하여 대항복합위기 관리 역량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는 성공적인 2019 을지태극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 을지태극연습은 제1부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제2부 전시대비 연습으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박차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두 기관은 올해로 개항 120주년 맞이한 군산항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 개항120주년 기념 포럼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개항120주년 기념식 및 군산비다축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두 기관은 군산항 120년 역사 소식이 70,000부를 발행해 군산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관내 해운 및 물류분야 대학생 100명을 초청해 군산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경기불황으로 군산항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산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

기관·기업·단체의 우호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군산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군산항은 당시에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항으로 이용됐으며 해방 이후에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현재는 대규모 국제항으로 성장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경찰서·익산소방서 긴급신고 공동대응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최근 익산소방서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통된 사명으로 공동대응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세밀하고 고도화 된 조치를 기하고자 112종합상황실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의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하여 공동대응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신고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빈틈없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체계를 확립해 현장 근무에 차질 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긴급신고 공동대응 가이드라인은 범죄로부터 시민이 급박한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일부 사건을 특정하여 최초 신고 접수시부터 경찰과 소방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는 내용이다.

박현수 익산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이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